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화합의 해

화합과 조화만이 미래로 가는 길..

경비원, 임금보다 장기계약 더 선호



김락중 (60·아파트 경비원) 정부가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의 부담이 늘어 오히려 고용이 불안해진다. 장기계약을 통해 경비원들의 고용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면 좋겠다.

의료체계, 예방중심이 더 효과적



김대용 (48·북구우리들병원원장) 환자가 걱정없이 진료를 받는 것도 중요 하지만 먼저 질병을 예방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 국민, 의료계, 정부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을 희망한다.

학파라치가 학원 불신 조장



조영 (45·해법영어계림교실 원장) '학파라치' 제도는 작은 잘못을 적발하고자 학원 전체를 불신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정치·경제·사회·교육 모든 분야에서 정리가 실현되는 건강한 사회를 원한다.

남북 신뢰 회복으로 통일 한걸음 더



은순중 (46·삼성생명 재무설계사) 잘사는 나라를 만든다는 명분하에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현명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남북관계 정상화 등 통일문제도 신경써 달라.

미개척 예술분야 작가들 환경 열악



황지해 (35·정원디자이너) 가난한 예술가들을 돌아봐 달라. 미개척 분야에서 묵묵히 작품 활동을 펼치는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드러나지 않은 곳의 진실에도 귀를 기울여 주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

소방관 처우개선 이제 실행을



김성철 (36·광주 북부소방교) 미래가 불안한 88만원 세대, 비정규직, 노인 문제 등 우리 사회 숙제가 많이 남았다. 서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정부, 다 같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사법부 개혁, 이번엔 제대로



김정희 (39·변호사) 검찰을 비롯한 사법 개혁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독립된 기능을 부여하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 달라. 일반인들 인식 속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길 바란다.

유통업 규제 보다 육성책 고민해야



백상일 (39·광주신세계 홍보팀장)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통산업 규제보다는 육성과 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을 펴 달라. 지역의 농어민과 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

주먹구구 농산물 수급대책 이제 그만



한승철 (47·한마음공동체 대표) 농민들이 정상되어 기쁜 농산물에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격이 폭락할 때는 손을 놓고 있다가 재해로 가격이 오르면 외국 농산물을 받 빠르게 수입하는 것에 대해 농민들 불만이 높다.

스포츠 소외 국민 위한 이벤트 확대



김선선 (24·광주 FC 주장) 요즘 경기 침체 탓에 경기장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팬들이 많다. 새 정부에서는 경기가 많이 활성화돼 많은 팬들이 기분 좋게 경기장에 나와 스트레스를 풀면 좋겠다.

국정 패러다임 지방중심으로



김기후 (47·광주경찰서사무처장) 새정부는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중앙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또 사회전반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주었으면 한다. 지방 균형 인지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식당, 물가·공공요금 인상에 이종고



이계만 (67·남동 청해복직 대표) 물가와 공공요금 안정화를 서둘러 달라. 해마다 식 재료와 공공요금은 오르고 있지만 그나마도 없는 손님이 줄어들까봐 지난 5년간 음식가격을 올리지도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새정부에서는 웃을 수 있었으면 한다.

목포에 수산업지원단지 없어서야



최형식 (61·목포수협 조합장) 목포는 참조기 생산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하지만 얼음값이 가장 비싸다. 지원단지가 없어서다. 목포시가 3년째 건의했지만 공전중이다.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차원에서 꼭 수산업지원 단지를 건설해줬으면 한다.

경제활성화로 주름살 펴게해 달라



양시호 (32·광주은행사회공헌국과장)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국민을 섬기는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리더십이다. 각종 규제 철폐와 지원책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회복시켜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부모의 마음으로 서민 돌봐주길



이재수 (신부·목포가톨릭대 교수) 국민들 간의 벽을 허물어야 하겠습니다. 새정부가 국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100%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약한 자식 보듬느라 다른 자식 돌볼 겨를 없이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으로 국민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철담 농성 노동자는 오늘도 눈물



박철수(목포 신정동성당 주임신부) 지금도 철담에서 고공 시위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잊어줄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새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았던 젊은 세대를 아우르고 그들이 바랐던 염원을 안고 보듬어 주는 정부를 만들어 달라.

지역·계층·세대 뛰어넘는 나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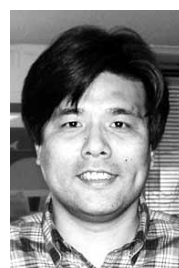
임은 (45·금호아시아나 문화홍보팀장)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사람과 평화의 국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다름보다 화해를, 전쟁보다 평화를, 중요보다 사랑을 중히 여기는 여성성을 바탕으로 세대·지역·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울려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중소건설업체 보호 제도 뒷받침해야



양흥기 (41·세종건설산업 대표) 건설산업은 대표 지역발전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수주물량 감소와 수익성 감소 등으로 지역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 보호와 발주자-수급자 간 대등한 관계 형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요문화도시 부합하는 예술산업 육성



이기훈 (43·지역문화교류재단 사무처장) 대통합의 시작은 균형발전과 고된 인재 등용을 통한 인사 대타당에 있다고 말한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육성 등 지역 공약이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

공영방송·언론 신뢰 회복 계기로



정승규 (69·무등현대미술관장) 대선 때 출연한 공약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진실과 순리가 실현되는 세상을 펼치기 위해 공영방송·언론 및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시기다. 나, 우리라는 탐욕을 떠나 국가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큰 뜻을 지닌 어른이 그립다.

차상위 계층 복지 지원 조금만 더



김정미 (40·사회복지사)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복지혜택이 늘려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생활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노·사 존중문화 기업경쟁력 키워드



윤은현 (51·광주경총 사무국장)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노사가 공생할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또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인사 탕평,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 행복한 시대를 열길 바란다.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 통과 시급



임승우 (57·무등시장상인회장) 민생정부를 표방한 만큼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 서 달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착과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화합의 리더십으로 경제 재도약



박정욱 (44·여행문화센터 대표)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정치 갈등이 치열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소통으로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국민화합의 장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길 바란다.

신뢰 외교로 동아시아 긴장 해결을



이남백 (43·미디어아티스트) 급변하는 세계 흐름과 대기업 눈치보지 말고 서민들, 약자편에서 정책을 펴 나가는 지혜를 바랍니다. 동아시아 시대, 뛰어난 외교력으로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반대파 꺼안고 유권자와 약속 꼭



박병우 (56·행복심리상담개발원장) 새 정부는 대통령이 구상한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한다. 또 국민도 화합의 정신으로 동치,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선택한 대통령과 새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었으면 한다.

소·중·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필요



김보곤 (52·케이산업 회장) 유럽발 위기에 지역 중소기업들은 작년보다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실물경제에 신경을 더 써 줘야 한다. 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 등 규모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민간사업 키워야 내수 진작 도움



위주환 (41·진솔공인중개사 대표) 보수와 진보, 빈익빈 부익부 등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화해와 통합으로 아울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의지가 중요하다. 규제를 완화해 민간사업을 키워야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야구 즐길 수 있는 돔구장 건립을



서재운 (35·KIA타이거즈 투수) 국내 야구 인프라는 아직도 열악하다. 대구와 대전의 새 구장 건립에 노력해주면 좋겠다. 선수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는 돔구장 건립도 시급하다. 또 광주를 외면하지 않는 정책과 배려 기대한다.

기초예술 환경 열악 자생력 키워줘야



최영화 (50·광주연극협회장) 기초예술분야의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 문화가 부강한 나라, 국민 자존감이 높은 나라, 국력이 문화적인 나라에서 살고싶다. 이를 위해 관이 주도하는 문화행정에서 탈피, 자발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Advertisement for Elysia featuring a family silhouette and the text '소망, 행복' (Someday, Happiness).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Elysia at Samu-dong, Seongnam City.